

인 문 여 성

제 9 호

ⓒⓒⓒ 제10대 인문대 여학생회 편집부 ⓒⓒⓒ

# 인 문 여 성

제 9 호

ⓒⓒⓒ 제10대 인문대 여학생회 편집부 ⓒⓒⓒ



- 여는 시 ----- "우리 붓물을 트자" / 2
- 인문여성 9호를 열며 ----- 여학생회장 인사글 / 3
- 기획 -----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여성농민의 삶" / 4 - 5
- 농활 일기 ----- / 6 - 8
- 답사기 ----- "1894년 여름과 1994년 여름  
-변함없이 뜨거웠던 그 땅을 다녀와서..." / 9 - 11
- 편집부 취재 ----- / 자주의 옥토  
제5기 대경여대협 일꾼학교를 다녀와서 / 12 - 13
- 공안탄압 분쇄! 자주적 학생회 사수!  
이제 통일로 나아갑니다. ----- / 14 - 15
- 부록 여성학 관련 참고 도서 수록 ----- / 16 - 17

☞ 알리는 글 ☜

- ♠ 대동학교 5와 1/2 ----- / 18
- ♠ 한총련 거듭나기 // 백만 학우 의견 개선 운동 --- / 19
- 편집을 마치며 ----- / 20

\* 여는 시



### "우리 뽀뽀 트자"

치맛자락 휘날리며, 치맛자락 휘날리며/우리 서로 뽀뽀를 트자/웃고름과 웃고  
름을 이어주며/우리 뽀뽀를 트자/할머니의 노동을 어루만지고/어머니의 보습  
을 씻어주던/차랑차랑한 뽀뽀를 이제 트자/병어리 삼년 세월 뽀뽀를 트자/귀  
머거리 삼년 세월 뽀뽀를 트자/눈먼 삼년 세월 뽀뽀를 트자/달빛 쏟아지는 뽀  
뽀를 트자/할머니는 밥이 아니다/어머니는 떡이 아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남  
자는 여자에게/한반도 덮고 남을 뽀뽀를 터서/석삼년 말라터진 전답을 일으키  
자/일곱 삼년 가뭄든 강산을 적시자

오랫동안 홀로 어둡던 벗이여/막막한 꿈길을 뽀뽀하던 뽀뽀/스스로 넘치는 뽀  
뽀를 터서/제멋대로 치솟은 장벽을 허물고/제멋대로 들어앉은 빙산을 넘어가  
자/오천년 이 땅을 좀 먹는 암벽/억압의 암반에 굴착기를 내리고/사랑의 다야  
너마이트를 터뜨려 캄캄한 수맥이 커단 빛을 내리자/하나보다 더 좋은 백의  
얼굴이어라/백보다 더 좋은 만의 얼굴이어라/형제여, 자매여/마침내 우리 서  
로 자유의 물꼬를 열어/구구구구 구구구구/비둘기떼 날아와 하늘을 덮게 하자  
/끼룩끼룩 끼룩끼룩/갈매기떼 날아와 수평선을 덮게 하자.

아무래도 날씨 이야기를 안 할수 없을것 같네요.

정말 지독한 더위였죠? 모두 어떻게 이 살인적인 더위를 뚫고 방학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방학내내 찜통같은 더위에 게다가 인문대는 이중창 공사와 외부도색으로 인해 그야말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구석구석 먼지 투성이지만 인문학우들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보니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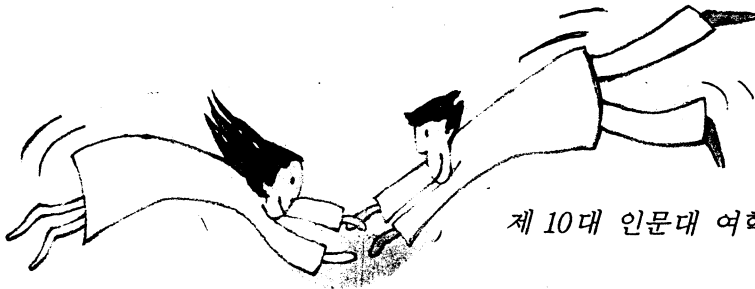
1주일이나 더 길어진 올 여름방학,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여름날의 추억이라도...)

저는요 지난 7월 30,31일 서울 중앙대에서 가졌던 전여대협 간부전진대회가 제일 먼저 기억납니다.무엇보다도 같은 여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발전적인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라 그런지 같이 얼굴 맞대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정겹고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5세 되신다는 빨치산 활동을 하셨던 선생님의 이때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 주옥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가슴 뭉클한 자리였습니다.60평생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양심껏 살아온 떳떳한 삶이기에 오늘날 이렇게 당당하게 설수 있다고 말씀하시던 그분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비록 얼마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한번 뿐인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짐을 해보았던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철저하게,꼼꼼하게,겸허하게 평가를 해내면서 2학기때에도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처음의 그 열의와 열정을 다시금 온몸으로 느끼며...



제 10대 인문대 여학생회장

박은희

##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성농민의 삶

### 1. 들어가며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농촌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업 노동력의 부족현상을 초래했고, 정부의 쌀시장 개방정책은 국민들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편은 공장에 취직해 '현금'을 벌고 여자가 모든 일을 도맡는 것이 요즘 농촌의 새로운 성별분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농업생산자로서의 역할중대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농촌의 생활규범은 가사 및 육아 등의 부담을 여전히 여성에게 책임지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농촌도 잘 살아보자는 구호에 발맞춰 공동으로 해야하는 행사와 작업이 많아지고, 농촌여성의 역할확대라는 미명하에 농가주부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가사일에다 더 많은 농사일과 동네일까지 떠맡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중부담-가사노동, 농업노동에 힘겨워하는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여성농민의 삶과 그녀들의 활동과 사회적 역할을 얘기해보고 끝으로 전국여성농민회의 여성농민 대 개혁안의 허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 2. 여성농민의 터진 일북

오늘날 농촌여성들은 농업생산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잡다한 가사와 힘든 자녀양육도 그대로 어머니 일이다. 1960년대 중엽까지도 농촌에서의 가사 활동은 안전히 부인의 일이었다. 남편은 바깥일, 부인은 집안일을 한다는 전통적 역할분담이 확고해서 남편이 가사일 돕는다는 일은 전무했다.

《농촌여성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 1987》에서 조사한 가사 협조자 분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시어머니가 4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딸, 남편, 며느리... 순이었다. 각 항목별 母數比를 낸 결과 가사협조자로 며느리가 8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어머니, 시할머니, 친정부모... 순이었다. 남편은 5.9%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사 협조자로

서도 부녀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66년 농촌 진흥청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당시 농번기때 농촌 주부의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을 합한 시간이 13시간 19분이 되었다. 그러나 이전보다 농사일이 질적, 양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볼때 남성들의 가사노동에의 협조는 극히 적다.

<<농촌 여성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1987)에서 농촌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기 위해 '하시는 집안 일에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너무 힘들다'가 47.0%, '약간 힘들다'가 24.0%로 응답자의 71.0%가 가사 노동을 힘들어 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가사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부인의 가사 참여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사 참여 정도는 가사 노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다.



6.29. 맑음

마음치관에서 집을 뚫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방 2개를 청소하고 이곳저곳 손을 보았다. 조그만 부엌에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무척 다행이었다. 부엌걸 샤워실도 훌훌리 쓰여질 수 있으리라. 화장실도 생각보다는 깨끗하고 기대 이상으로 이곳은 근사하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고 우리를 찾아왔다. 시골 아이들이나 수줍음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녀석들이 꽤나 똑똑똑하다. 머무르는 동안 저 아이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농민회 아저씨는 무척 깐깐하신 분으로 보인다. 텃장언니에게 여러 번 무안을 주시는데 그걸 보니 걱정이다. 무서운 분 같기도하고... 함께 온 일문과 사남들은 모두 대하기가 편하다. 모쪼록 잘 지내야 할 텐데.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힘내자.

6.30. 비

비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어제는 도착한 날이라고 쉬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할 수 없이(?) 쉬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운건가?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더니 오전시간은 왜그리도 긴지... 가뜰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없다하여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일보다 더 하기 힘든 엄청난 것을 시키셨다. 교양과 토론.. 왜 화살은 꼭 94학번에게 맞춰지는 걸까. 오전내내 빗소리만 들으면서 앉아있으려니까. 고생그럽겠지만 일하는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은 비가 안오기름...

7.1.

“윤준은 농약을 많이 쳐서 거머리 같은 건 구경도 못하지!”

웬걸-논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가던 은영이가 “거머리다!”라고 소릴 질렀다. (오 가드! 와이, 이런 시련 투 미 !!)

“그래도 어제보다 낫지” 마음을 굳게 다지고 씩씩하게 낚초를 뽑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을 하니 너무 신이났다. 가뜰히 앉아 좀더 교양책보는 것에 비하면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도 몇분 후엔 아이고 하느님이였다. 폭을 뽑으려는 몹을 굶히고 있는 시간



보다 허리를 펴는 시간이 더 길었으리라. 무슨 잡초가 그리도 많고 논을 또 얼마나 크던지. 한참을 해도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일한 그집에선 농사짓는 사람이 그 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두분뿐이었다. 내가 몇번 허리를 펴는 동안에도 묵묵히 역센 손을 바쁘게 움직이시던 어저씨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다. 오랜세월 나라의 생명줄을 지켜온 저 흙 묻은 손이 바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나라의 지배자와 바다 건너 코 큰놈들은 그렇게 양갈을 부리는 걸까..

아이들은 신이 나서 야단이다. 우리가 일 나갔을 때부터 마을 하판을 서성거리다가 밤늦게 까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농사일로 어른들이 모두 바쁜 그 곳에선 시간을 같이 보내 사람이라곤 없었으니 갑자기 나타날 언니 오빠들은 상당한 충격이고 관심의 대상인 것이다. 오늘은 자신의 장래희망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머슴애들 대부분이 경찰이 되기를 희망했고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선생님이 되고 싶어했다. 아이들은 발표하는 걸 무척 싫스러워 한다. 나도 아직은 그 애들 앞에서는 겁이 나고 싫스러웠다.

## 7.2

일에 지치다 보니 분반활동 하기에 너무 어렵다. 아이들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안내심을 시험한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 하지마라” 이다.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 자꾸만 귀찮다는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난다. 오늘은 과일 나무 꾸미기르 했다. 나무 바탕그림에 여러가지 과일을 맛들어 붙이게 하는 놀이었다. 아이들은 각자 개성이 너무 뚜렷하다. 차분한 아이. 덩벙대는 아이. 성의있게 뭐 맛들다가도 굶방식증을 내는 아이. 가위질이 서툰어도 끝까지 자기가 오려내는 아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굶방식증을 잘 낸다는 것이었다. 자주 새로운 것을 원하는데 내 능력으로 어쩔도 없다. 피곤하다.

## 7.5

동네 잔치에서 아이들은 무용과 합창을 했다.

나부터가 대충 해치우고 말자는 식이었으니 무슨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었을까?

아이들은 앞에서 있는 것조차 부끄러워 했다.

그래도 연습할 땐 그렇게 변덕을 부리던 진성이, 광수가 생각보다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처음엔 너무 속을 썩여서 겁고 귀찮더니. 이젠 정이 들어 버린 것 같다.

잔치가 끝나고 평가회를 간단히 가졌다.

그동안의 농향에 대한 아저씨의 평가는 눈물이 날만큼 매서웠다.

그래도 말 뿐인 칭찬은 그만 두시고 솔직하게 꾸중해 주셔서 더 고맙게 느껴졌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 간 사이 축발을 해서 못보고 온 게 자꾸 맘에 걸린다.

몇몇은 아침 일찍 들렀다 학교로 갔다. 진성이가 타 주길 바랐는데 끝내 오지 않았다.

나쁜 자식...

아저씨가 무척 서운해 하셨다. 내색은 안으셨지만.

머정이 언니가 울음을 터트리는 바람에 나도 따라 울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모두들 무척 보고 싶을 것이다.

이번 농항에 대한 평가는 수없이 많이 가졌다.

전체별호, 팀별호, 분과별호... 그리고, 각자 개인별호도.

그때마다 잘한 점 보다 문제점이 훨씬 많이 거론되었다.

그렇다고 문제만 가득한 농항이었으랴. 나눴대호 성과도 있었고 나에게도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진심으로 박수응 보낸다. 의장님이 잘하셨다고 한다. 모두들 "타도 03"을 외치고 있다. 03을 타도하기전에 나는 좀 쉬고 싶다. 아무래도 애국하긴 특년것같다. 의장님 죄송해요 끝까지 힘내세요.



## “1894년 여름과 1994년 여름 -변함없이 뜨거웠던 그 땅을 다녀와서...”

### ‘갑오농민전쟁’-

이 100년이나 지난 사건은 우리과 학술부 사업내용 중 하나이다. 갑오농민전쟁에 대해 공부해서 세미나를 통해 과 학우들에게 거기에 대해 알리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직접 보고 듣기 위해 답사를 다녀오고, 또 한 번의 세미나를 가지는게 그 사업의 큰 줄기이다. 거기에 나는 갑오농민전쟁에 대해 단지 공부해 보고 싶다는 의욕으로 무작정 참여했다. 그리고 공부했고 난생 처음 세미나라는 것을 해보았고, 또 난생 처음 답사라는 것을 떠나게 되었다.

전에는 나에게 갑오농민전쟁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단지 과거의 일로만 치부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보고 듣는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때의 그 절박했던 상황을 직접 느껴보고, 우리가 갑오농민전쟁을 알아야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와 지금에 있어서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답사 여정에 오르기로 했다.

답사를 가기로 결정한 후 날짜와 코스를 정했는데, 답사지는 100년 전 가장 치열했던 전라북도 지역과 1980년 5월의 뜨거운 피끓음이 아직 느껴지는 전라남도 광주 망월동으로 정했다. 답사 떠나기 전에 봉건경제의 해체와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것과 갑오농민전쟁 전후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약간의 교양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전답사는 가지 못했었고, 답사준비도 촉박하게 이루어졌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들의 역사밧기는 출발부터 평범을 거부했다. 차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학술부장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도와 버너를 가지고 오지 않은 떨떨한 학술부 차장님을 떼버리고 가는 것으로 답사는 그렇게 불안하게 시작되었다. 비오는데 답사는 무슨 답사냐며 떠나는 날 아침까지도 못마땅해 하시는 아빠의 의심섞인 눈을 뒤로하고 100년 전,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거웠던 그 땅을 밟아보겠다고 약간의 두려움 섞인 기대를 하며 따라나서기는 했지만 3박 4일이라는 너무나 짧은 시간동안 정말 쓸데없는 것이 돼버렸다.

불안한 출발과는 달리 우리의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전북대에서 점심먹고 신 태인에서 말목장터가 있는 이평으로, 이평에서 전봉준 고택지, 거기서 황토현 야영장까지가 첫 날 일정이었다. 이평에서 황토현까지는 걸었는데, 100년 전 그 때의 농민군들이 걷고 뛰었던 그 길에서 그들의 심정과 숨결을 느껴보자는 의도였다. 즐거웠지만 힘들었던 그 길에서 내가 농민군들의 심정과 숨결을 느낄 수 없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의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과 자꾸 죄어져 혈떡이는 그들의 숨소리는 선명하게 느끼고 들을 수 있었다. 탁 트이고 끝없이 펼쳐진 연두빛 논밭이 군데군데 타고 말라서 누렁거나 검었고, 길가에는 물을 퍼올려 끌어대기 위해 설치해 놓은 긴 호스가 널려져 있었고, 현수막과 담 벽에는 U.R.을 거부하고 정부를 원망하는 글귀들이 내 눈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했다. 새로지은 말목정과 잘 정돈된 전봉준 고택지를 보며, 그것만이 갑오농민전쟁때의 농민들의 정신과 마음을 계승하고 잘 지키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건 다음 날 찾아간 황토현 전적지 기념관,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동학혁명 모의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힘들여 찾아간 보람도 없이 너무 볼 것이 없어 실망도 했지만 그것들을 볼 때 역사를 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하나의 조형물을 본다는 느낌이 더 큰 것은 왜였을까? 넓게 펼쳐진 들판을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그런 답답함은 두번째날 저녁에 휘어들었던 바다와 세번째날 선운산에서 맞았던 빗 속에서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번 답사에서 실망과 답답함을 느낀건 아니다. 단지 역사로서만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유적들과 그것조차도 역사를 자기 맘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의해 올바르게 남아있지 못한 것에 비해, 100년 전에 그 땅의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나 지금 거기에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역사를 바르게 만들고 이어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다. 죄어져 오는 U.R.의 위협에도 곳곳이 농촌을 지키고 모든 것이 다 타들어 갈 것같은 가뭄에도 벼 하나라도 살려 보겠다고 실새없이 물을 대는 농민들, 열심히 말목장터에 엮힌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할아버지, 힘들게 걷는 우리에게 타라고 트럭을 세워 주시는 아저씨나 앉아서 물이나 마시고 좀 쉬어가라는 어는 할아버지에게서 그런 기쁨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날 광주로 가는 버스 속에서 자꾸 봐도 질리지 않는 연두빛 들판과 그 속에서 일하시는 농민들을 보며 제2의 갑오농민전쟁, 아니 최초의 농민혁명을 상상하는 내가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은데서, 이 번 답사로 조금은 큰 것 같은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적지를 돌며 느꼈던 답답함의 확실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꼭 가보고 싶었던 망월동을 돈과 시간 때문에 가지 못해 약간의 아쉬움을 지니고 대구행 버스에 올랐다.

딱딱한 3박 4일이 너무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은, 그러나 어떤 여운을 남긴채 빨리 지나가버려 못내 섭섭했지만 답사를 오지 않았다면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것이기에 그런 섭섭함까지도 소중한 사전 답사 없이 떠나 실수도 많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각자

무언가 느껴보겠다고 나서서 서로 부대끼고 너무 즐거워했던 이 뜻깊은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들도 소중하다.

100년 전 살아보겠다고 펼쳐 일어난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우리 조상들 때문에 달구어졌던 그 땅이 100년 후 7월에 작열하는 여름의 태양과 무언가를 배우고 느껴보겠다고 나선 우리들의 심장으로 다시 뜨겁게 달구어졌었다.



## “자주의 옥토 제5기 대경여대협 일꾼학교를 다녀와서”

지난 7월 23일 부터 1박 2일간 청천 다락원에서 ‘자주의 옥토 제5기 대경여대협 일꾼학교’가 치뤄졌다. 94년 준비기인 2월에 상반기 대경여대협 일꾼학교 이 후 이렇게 모두 모이는 자리는 처음이라 그동안 어떻게들 살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전여대협 의장님(부산대 '91 남은주)을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하반기 일꾼학교에서 뭔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 우리 인문대는 여학생회장님, 철학과 여학생회장, 탁아부장, 편집부장 이렇게 4명이 참가했다.

청천 다락원은 큰 길에서 약 1시간 정도 걸어 올라와야 하는 곳이라 짐통 더위에 얼굴이 벌게서 속속 도착하는 여대협 일꾼들이 “의장님, 쪼메밖에 안 걷는다카디. 속았다”며 처음부터 빠신 일꾼학교를 실감하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서 곧 강연으로 들어갔다. 강연은 한총련 부문계열운동 담당하시는 선배님이 ‘우리의 여학생운동에 대해’란 제목으로 풀어 가셨다.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의 전통을 항일무장투쟁시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여성운동의 자부심에 대해 얘기하셨고, 부문계열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의 성격과 전체 학생운동과의 조화, 함께 운동을 해나가며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과 그 해결점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다. 또 선배님은 부문계열운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제 활동 속에서의 실천들을 위한 책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그러한 책을 한 권 내는 것이 소망이고, 준비하실 거라는 말과 더불어 부문계열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여대협 일꾼들이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강연이 끝나고 5시가 다 되어서야 저녁을 먹을 수 있었는데 모두들 점심도 굶었는데 라면으로 대충 저녁을 해결하고 다음 일정인 대경여대협 대표자들과의 좌담에 모여 들었다. 지루한(?) 강연을 즐기고 대표자들이 직접 상황극을 하고 일꾼들과 토론을 벌여 나가는 이 좌담회는 ‘일꾼학교의 꽃’이었다. 무려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여학생 간부들, 우리를 진단한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학기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무의식 중에 보여졌던 우리 일꾼들의 모습을 진단해 보고 올바른 간부의 상을 끌어 내오자는 의도였다.

안건은 모두 4가지로 ‘우리 여학 간부의 활동하는 모습’, ‘공동체 생활에서 나타나는 자유, 개인, 안일, 온정주의’, ‘나는 여학단위에서 변화, 발전하였는가’, ‘앞으로의 진로’였다. 대표자들의 익살스런 연기에 배꼽을 잡았었고, 진지한 토론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간부로서의 자세를 찾아보려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간부들과 대표자들간의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해 대표자들의 얘기를 듣는 좌담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좌담회가 끝나고 '전여대협 통일 선봉대 결의 한마당'이 벌어졌다. 민족의 운명과 과 자신의 운명의 관계를 자주적으로 변화시키고 주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통일 투쟁의 선봉에 서고자 홍주(법대 '93), 회주(농대 '93)가 결의를 낸 자리는 감격스런 한마당으로 우리 일꾼들의 가슴에 또 다른 결의를 세워냈다.

11시가 되어서야 일꾼학교의 빼놓을 수 없는 '함께 가는 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모두 4조로(7인 1조)나누어 코스를 돌았다. 서먹서먹하고 이름도 얼굴도 그 자리에서 알게 뻔지만 6코스를 돌면서 우린 어느새 절로 손을 마주 잡고 싶은 동지가 되어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리도록 오리걸음도 걷고, 구호 외치는 연습, 집안 문제에 대한 즉석 상황극, 제5기 대경여대협 총기치에 대해, 서로의 고민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그 시간들이 결코 지루하지도, 또 한 밤이었지만 전혀 무섭지도 않았다. 서로 맞잡은 손에 힘이 주어질 때마다 동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더해만 갔던 시간이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서 4조가 모두 돌아와 반쯤 감은 눈이지만 모닥불 앞에서 서로의 어깨에 손을 감고 입모아 노래를 부르고서 주님이 계신 숙소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리운 주님도 잠시, 목사님(청천 다락원은 기도원임)이 출동한다는 속보로 인해 주님과과는 그만 작별해야 했다.

다음날, 전날의 피곤 때문에 모두 늦잠을 잤지만 남은 일정인 조별 주제토론을 사수하고 대경여대협 일꾼학교를 무사히, 힘차게 마치고서 처음 올라올 때 힘겹던 그 길을 단숨에 내려왔다.

일꾼학교에 참가해 보면 많은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더 무거운 짐을 안고 올 때도 적지 않았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간부로서의 자세, 자질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일꾼학교에서는 2학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일꾼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추스려보자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풀었던 것 같다. 비록 가뭄이라 물놀이 일정은 사수하지 못했지만 일꾼학교 때의 그 기분으로 2학기도 열심히, 신나게 뛰어다닙시다. '자주의 옥토 제5기 대경여대협 일꾼들, 수고하셨습니다!'

## 공안탄압 분쇄 ! 자주적 학생회 사수 ! 어제, 통일로 나아갑니다.

문민정부 출범 1년이 넘어갔다. 군부독재를 끝내고 세워진 문민정부에 대한 4천만 국민의 기대는 실로 높았다. 군개혁, 공무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등 국민을 놀라게 하는 사건들고 가득찼다. '변화와 개혁' 말로만 들어도 가슴뛰고 5.6공때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많은 사실 앞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와 찬성을 보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이 국민을 속이고 '변화와 개혁'이 우리를 더욱 못살게 하고 있다. 압제와 폭압으로 우리 국민들 앞에 나타난 개혁, 애국적 세력에 대한 과감한 탄압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물가, 민족의 핏줄을 미국놈에게 팔아먹는 정권, 이러한 세상이 군부독재를 끝내고, 참 민주를 염원했던 정권이란 말인가?

북핵문제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던 미국에 의해 전쟁분위기가 조장되었거 쯤대없이 움직이던 김영삼정권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 농민들이 쌀수입반대, 국회비준저지투쟁이 폭발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7,8월 대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이회창총리의 경질과 김종필 총재의 6월 위기설로 표현되듯이 총체적 위기상황과 민중들의 힘들이 날로 확대되어가는 시기였다.

김영삼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공안 탄압이라는 드라마를 하나 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6월 경북대를 중심으로 조작되었던 '구국전위' 간첩단조작사건을 필두로 애국세력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공안몰이를 시작했다.

연이어 6.18 홍익대 사태로 한총련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며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어느해 보다 광폭하게 진행시켜 왔었다.

그러던 중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분단 이후의 첫 만남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통일의 희망이 무르익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김일성 주석의 서거로 다시 한번 김영삼정권은 또 하나의 조국 복환을 매도하면서 또다시 공안몰이를 강화시켜 나갔으며 급기야는 서강대 박흥 총장의 '주사파' 발언으로 매카시 선포는 극에 달했다. 사상 최대에 달하는 학원침탈, 수배자, 구속자를 기록하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공안 탄압의 실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히면 끝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신공안 탄압은 애국적 세력에 대한 완전말살을 기도하고 있으며 애국세력과 국민들, 그리고 학생회와 학우들을 분리시켜 이후 정세속에서 진행될 통일 분위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안정적 정권의 기반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한번 김영삼 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결코 국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정권이 아니라 독재정권과 다름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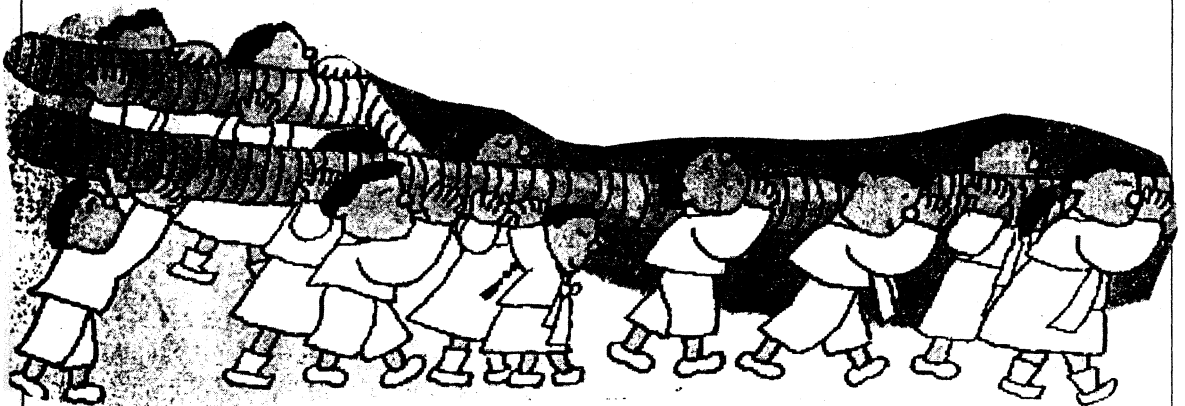


이 자신의 정권유지와 기득권유지, 미국의 눈치만을 위한 정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회와 학우들의 친밀한 결합으로 학생회를 공안탄압 속에서 사수해내며 학  
생회를 강화시켜내야 한다.

또 이후 진행될 통일분위기에서 민족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내실있는 정상회담성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것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자주적 학생회와 함께 통일시대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몇일 전, 구국전위 중앙위원으로 수배중이던 총학생회 사무국장 김창호(공대 전자 85)  
선배님이 연행이 되셨습니다. 선배의 애국적 삶을 잊지말고 살아갑시다.



## ❖❖❖❖❖❖ ‘여성과 사회’ 수강시 참고도서 목록 ❖❖❖❖❖❖

### 1. 문제제기

♣여자는 왜-동녘 ♣삶의 여성학-또하나의 문화 ♣내가만난 여자, 그리고 남자-그린비

### 2. 성차의 이해 및 사회화(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형성과정)

♣남성연구-나라사랑 ♣7가지 여성 콤플렉스-현암사 ♣7가지 남성 콤플렉스-현암사  
♣성의 심리학-이대 출판부(시드니&카플란) ♣한국의 남성과 여성-문학과 지성사

### 3. 가족과 결혼

♣주부:그 막힘과 트임-또 하나의 문화 6호/ ♣이혼, 또 하나의 선택-여성사/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한울/♣ 한국 가족론-까치

### 4. 성

♣이제는 말하자-참세상/ ♣새로쓰는 사랑이야기-또 하나의 문화 7호/♣ 새로쓰는 성 이야기-또 하나의 문화 8호/♣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동아일보사/ ♣성, 성폭력, 성폭력의 역사-일월서각/

### 5. 여성과 일

♣ 사무직 여성의 현실과 노동-석탑/ ♣“가사노동,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여성과 사회 창간호/ ♣“살림, 아무나 하는 일 아니다.”-또 하나의 문화 6호/ ♣“여성과 노동”-여성학 강의;동녘/ ♣여자가 일한다는 것, 어머니가 된다는 것-하늘

(여성학 분야의 정기 간행물)

### 1. 학술지

◆ 여성학 논집: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에서 발간/여성관련 연구논문이 주로 실리

며, 매 해 여성학과 석사논문개요가 소개되고 있다. 1984년부터 매년 1회 발행

◆ 아세아 여성연구: 숙명여대 여성연구소에서 발간/여성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실고 있다.

◆ 여성: 여성사연구회에서 발간

◆ 한국 여성학: 한국 여성학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논평이 실린다. 한국 여성학회는 85년에 창립된 이래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 2. 무크지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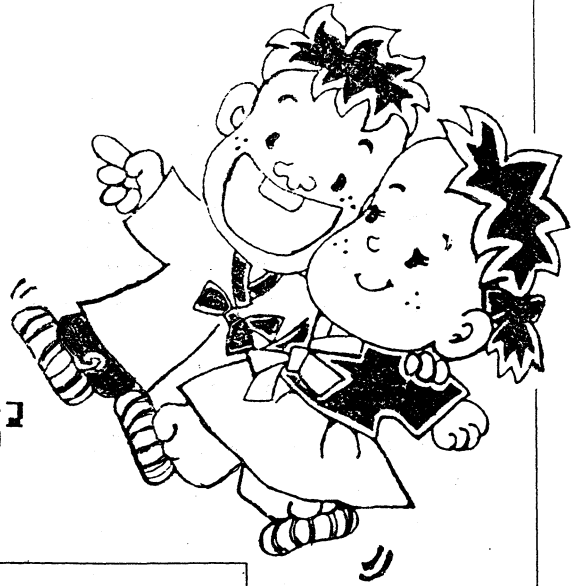
◆ 또 하나의 문화(현재 9호까지 나옴): 인간적 삶의 양식을 담은 대안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실천해 가는 동인 모음지

◆ 여성과 사회: 한국여성연구회에서 발간(현재 5호(1994)까지 나옴)

◆ 사무직 여성: 한국여성민우회

◆ 여성신문: 여성신문사

(제10대 인문대 여학생회에서는 여성학 논집(9,10호)와 한국여성학이 있구요, 여성신문은 정기구독,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만남, 그리고 하나됨  
5 1/2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

28(수)	29(목)
4시 축하공연	4시 영화상영- 도라지꽃
5시 강연-김연자 기지촌의 여성들	6시 강연-박순천 역사와 함께 한 여성의 삶
7시 초청연극?	7시반 공동체놀이 8시반 대동놀이

◆◆◆ 강연 ◆◆◆

1. 기지촌 여성의 삶  
--- 20여년 동안 양공주 생활의 처참한 상황을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오신 분의  
    처절한 절규
2. 역사의 수레바퀴를 밀고온 여성  
--- 한국 사회의 봉건적 억압과 식민의 삶을 책임지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장

◆◆◆ 연극 ◆◆◆  
    셀리 발레타인

◆◆◆ 영화 ◆◆◆  
    도라지꽃

- 과연 북한의 여성은 자기의 삶을 어떤 식으로 개척해 나가는 지 남한의 여  
성상과 비교해보고 이해하는 장

## 한총련 거듭나기

### ■■■■ 백만 학우 의견 개진 운동 ■■■■

일시 : 9월 5일 -- 9월 18일 사이

- 내용 : 1. 각 학교 학생회 운동 평가와 전망
2. 한총련 운동 평가와 이후 방향및 계획
3. 하반기 정치 정세 전망

하반기 중앙위에 반영되어 한총련 거듭나기 혁신과제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 ■■■ 편집을 마치며 ■■■

인문대 여학생회 편집부장님이 이 인문여성 9호가 채 나오기도 전에 너무나 먼 곳으로 간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편집부장님이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덕 받은 원고 받아 정리하고 편집만 하면서도 내내 열성을 일으키던 컴퓨터 때문에 투덜투덜거렸지만 너무나 기쁘다.

분명 중국에서도 우리 편집부장님이 인문여성 9호를 보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더 기뻐할테니까.

편집후기    여연부장 강호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

☞ 특집 ! 인문여성 10호

올해 마지막으로 특집호인 인문여성 10호가 나오게 됩니다.

인문여성 10호에선 더욱 알차고 깊은 내용으로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변화, 발전된 내년을 기약하겠습니다.

인문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 이걸 절대 비밀인데요 특집 ! 인문여성 10호 !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문여성 10호 !! 놓치게 된다면 평생 후회할걸요 ??

2학기때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학우들    앞에    서겠습니다

----- 제 10 대 인문대 여학생회 임동 -----

발행인 : 1994년 9월

발행인 : 철학, 91, 박은희

편집인 : 중문, 91, 권수미

인쇄처 : 집현전 ☎ (942-8921)